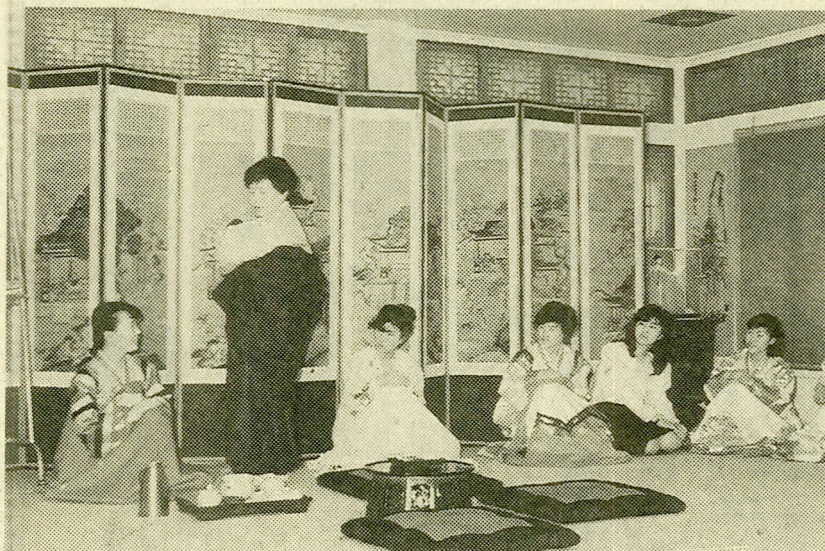


“지나친 격식-순종강요 싫다”

## 「결혼예비교실」 받길 “뚝”

대한가족協등 강좌 수강생없어 「개점휴업」 속출



다도와 한복 입는 법을 배우는 미혼여성들. 요즘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결혼관 변화 등으로 이같은 예절교육에 관심을 쏟지 않아 결혼예비교실이 사라져가고 있다.

「신세대」들은 달라진 결혼관과 가족내의 엄격한 규율이 사라져가는 핵가족화에 따라 결혼 뒤 갖춰야 할 갖가지 예법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성단체 등에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제례법, 생활예절을 가르치거나 행복한 결혼생활, 성과 사랑 등에 대한 강좌를 열었던 결혼예비교실이 최근들어 수강생부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86년부터 일년에 한번씩 결혼예비교실을 열어 성과

년여성교육원의「청아반」역시 수강생 부족으로 91년 말 문을 닫았다.

한때 붐을 이뤘던 결혼예비교실이 이처럼 결혼예비교실이 이처럼 미혼여성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로는 우선 요즘 세대와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교육내용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성화로 예비신부교실을 다니다 중도에 그만둔 뒤 지난 2월 결혼한 朴素英씨(27·서울노원구상계동)는 『여자는 있는듯 없는듯 거동이 조용해야 한다는 등 유교적인 관습을

운영하는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의 경우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계획, 부부대화법, 갈등대처사례 등을 위주로 한 토론식 교육을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교육역시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金熹暎)

## 시대반영 「토론식 교육」등 개발 아쉬워

사랑, 목적별 피임법, 결혼과 예절 등을 교육했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수강생이 모자라 올해 전국 12개 지부중에서 결혼예비교실을 여는 곳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일부터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예절교실을 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생활관의 경우 예년에는 평균 20명씩이던 수강생이 현재 4명밖에 없어 초미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상설반을 운영하고 전담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서울 YWC A의 규수학당, 청

그대로 이어받아 지나치게 격식과 여성의 순종을 강조하는 교육이 고루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다』고 말한다.

또한 모시고 사는 어린이 없이 부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핵가족의 보편화, 결혼이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개인대 개인의 결합으로 쉽게 여겨지는 변화된 결혼관도 예법이나 결혼에 임하는 태도, 원만한 부부생활 등에 대한 교육이 「낡은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90년부터 소모임형식으로 「결혼준비모임」을